



◎ 축구 섯별 윤빛가람·지동원

“신인왕 절대 양보 못해”

한국축구 세대교체의 선두 주자로 주목받는 미드필더 윤빛가람(20·경남)과 스트라이커 지동원(19·전남)이 프로축구 K-리그 무대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생애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신인선수상 수상에 놓이고 벌이는 둘의 경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둘은 14일 열린 소나라 K-리그 2010 17라운드 경기에서도 나란히 골맛을 봤다.



윤빛가람은 선두 싸움을 벌이는 전북 현대와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후반 16분 결승골을 터뜨려 3-2 승리를 안겼다. 경남은 이날 승리로 리그 선두로 뛰어올랐다.

지동원은 선두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4-2승)에서 전반 24분 역시 결승골을 터뜨려 갈 길 바쁜 제주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축구를 젊어질 윤빛가람과 지동원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이제 K-리그의 또 다른 재미가 됐다. 둘은 21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신인왕 경쟁 '독주는 없다' =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는 지동원의 독주로 굳어지는 듯했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올해 전남에 입단해 K-리그에 뛰어든 지동원은 프로축구 20경기를 뛰면서 벌써 7골을 넣고 3도움을 올렸다. 데뷔하자마자 전남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최근 8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태고 있다. 윤빛가람은 올 시즌 20경기(16경기 풀타임)에서 6골4도움을 올렸다. 특히 지난달 3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부터 14일 전북과 홈 경기까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2경기 연

20경기에 벌써 7골 3도움 전남 드래곤즈의 '여의주' 지 한국축구 차세대 골잡이로

속 결승골을 넣은 윤빛가람의 활약으로 정규리그 3연승을 달린 경남은 다시 선두로 나서며 창단 이후 최고 성적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준비된 새내기 = 지동원과 윤빛가람 모두 K-리그에서는 새내기이지만 '깜작 스타'는 아니다.

지동원은 지난해 11월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대회 예선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마카오를 상대로 헤트트리를 터뜨리며 대표팀의 5-1 완승을 이끌었던 유망주다.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1년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에서 유학도 했고, 지난해 SBS 고교 챌린지리그 14경기에서 17골을 터뜨려 대회 득점상을 받은 한국축구의 한 차세대 골잡이다.

윤빛가람도 2007년 한국이 개최한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뛰었을 만큼 일찌감치 기량과 잠재력을 인정 받은 기대주다. 고교 졸업 후 중앙대로 진학하자마자 부상을 당해 오랫동안 그라운드에서 떨어져 있던 지동원을 대표팀에 불러들였다. 윤빛가람은 A매치 데뷔전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선제골까지 넣었다. 지동원은 아쉽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A매치로 발탁돼 맹활약을 펼쳤던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윤빛가람과 지동원은 새로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조광래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선수들이다.

실제로 조 감독은 국가대표 사령탑 데뷔전이었다던 지난 11일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2-1 승) 때 윤빛가람과 지동원을 대표팀에 불러들였다. 윤빛가람은 A매치 데뷔전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선제골까지 넣었다. 지동원은 아쉽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A매치로 발탁돼 맹활약을 펼쳤던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20경기에 6골 4도움 활약 윤 경남 FC 선두도약 견인차 A매치 데뷔전 선제골까지

지동원은 경남FC와 16강 원정경기(7-4 승)에서 헤트트리를 기록하는 등 FA컵 2경기에서도 4골2도움을 기록하며 전남을 대회 8강에 올려놓았다. 당시 경남의 지휘봉은 조광래 현 대표팀 감독이 잡고 있었다.

지동원로서는 신인상이 '때는 당상'인 줄 알았는데 최근 무시무시한 적수를 만났다.

바로 경남의 중원사령관 윤빛가람이다. 윤빛가람은 올해 K-리그에 뛰어들자마자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 올 시즌 경남의 돌풍에 큰 힘을 보

윤빛가람

- ▶ 1990년 5월 7일생
▶ 클럽: 경남 FC
▶ 신장: 178cm
▶ 몸무게 70kg
▶ 포지션: MF

지동원

- ▶ 1991년 5월 28일생
▶ 클럽: 전남 드래곤즈
▶ 신장: 187cm
▶ 몸무게 78kg
▶ 포지션: FW

연합뉴스

산행안내

8월 22일(일)
▲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T.010-3625-4388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T.010-603-9477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8월 21일(일)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8월 21일(일)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8월 21일(일)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8월 21일(일)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광주산악회 산악회 등반(금산)산악회 등반(7시)
... (repetitive text) ...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 633 - 636, 638, 637 도로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삼호석유화학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해당항을 이유로 부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7월 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주 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의 주식 1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공고에서 익일부터 2010년 9월 22일까지 본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 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 658 도로법 위반
피고인
세진삼문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7월 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주 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의 주식 1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공고에서 익일부터 2010년 9월 22일까지 본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 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 633 - 636, 638, 637 도로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삼호석유화학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해당항을 이유로 부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 658 도로법 위반
피고인
세진삼문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